

## 새해 휴대폰시장의 변화

휴대폰은 올해 국내 IT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다. 지난해 터치 열풍이 휴대폰 시장을 주도했지만 새해 휴대폰 시장은 더욱 많은 종류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휴대폰업체를 통해, 전자신문에 의하면, 새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할 고급형 휴대폰 기종의 성능과 제원을 예상한다.

### 내장카메라 8백만화소로 진화

내장 카메라 화소에 있어, 카메라 모듈 제조사는 늦어도 새해 3분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800만 화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800만화소는 DSLR와 맞먹는 선명한 정지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500만화소 카메라 모듈은 새해 상반기까지 시장을 주도하다가 점차 밀려나게 된다.

휴대폰 동영상에 있어, VGA급 화질이 한계인 휴대폰 동영상은 새해 2분기 이후 초당 30프레임의 HD급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진다. 카메라 모듈 제조사는 새해에는 이른바 UCC폰의 HD급 캠코더 기능이 소비자에게 가장 큰 기술적 진보

를 경험케 할 것으로 예측했다. CPU 및 그래픽 칩에서는, 요즘 단말기 CPU의 성능은 ARM9이 주역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초기 PC 수준인 ARM11이 시장 주역으로 떠오른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려면 CPU 성능이 향상돼야 한다. 휴대폰의 그래픽 성능을 개선하는 화질개선 칩도 기본으로 탑재된다. 인터넷 폴브라우저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 액정크기 규모 대형화

액정크기에서, 스마트폰의 액정은 작년 2.8인치에서 금년 3.2인치 제품이 주력이 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전체 터치스크린 시장에서 휴대폰용 3.2인치 제품 비중이 올해 14.6%에서 내년은 22.1%로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장 메모리와 진동모터에서는, 휴대폰 내장메모리는 512MB가 대부분이지만 동영상 촬영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해엔 4Gb가 주력이 된다. LG이노텍 등은 진동모터의 반응속도를 절반으로 줄여 내년에는 터치폰을 누를 때 딸깍거리는 진동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

소음제거기능에서는, 주변 소음을 제거해 통화품질을 개선하는 속칭 '알리바이폰'은 작년 서너 모델만 출시했지만 새해 하반기에는 거의 모든 휴대폰 기종에 기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의 베이스칩이 소음제거기능을 지원해 원가상승 없이도 통화품질을 향상시키는 소음제거기능은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다만, 휴대폰 스펙의 향상에 따라 떠오른 배터리 문제는 새해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산 휴대폰 국내 진입 강도 크지 않을 듯

외산 휴대폰은 10% 점유율도 힘들다. 새해부터 노키아를 비롯한 다양한 외산 휴대폰이 대거 한국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부터 위피 탑재 의무화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애플의 3G 아이폰과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 등이 줄줄이 한국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한국 시장 안착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국형 서비스 개발과 AS망 확충, 환율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10% 점유율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외산 휴대폰들이 모바일뱅킹을 비롯해 지상파·위성DMB 등의 한국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컨버전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단말기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초반에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면 2월께 한국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노키아의 '6210 내비게이터'의 경우 노키아 자체 OS인 심비안 9.3 버전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일단 위피를 탑재하고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용 서비스 개발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콘텐츠를 심비안 기반으로 컨버전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들의 기반이 넓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 고환율로 외산 휴대폰가격 저렴하기는 어려워

최근의 환율 상승도 부담스럽다. 6210 내비게이터의 가격은 250유로 선으로 현재 환율을 고려할 때 45만원을 상회한다. 외산 휴대폰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던 작년초 1000원 미만이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달하는 것이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는 전국적인 휴대폰 AS망의 구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KT 측은 일단 30여개에 달하는 SK네트웍스의 서비스망을 통해 AS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과 LG의 인프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노키아를 비롯해 초기에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휴대폰들은 테스트 성격이 강한 제품들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고급화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히트 제품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 한 10%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 공략, 금년이 승부처다. 메이커들이 올해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비중도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빠르게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노키아, 삼성, LG 등 정통 휴대폰 3강과 애플, 구글 등이 분야 3강 간 주도권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 주요 대기업 스마트폰에 사업역량 강화

업체들은 금년 스마트폰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적인 사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업체는 작년 20여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사업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판단 아래 금년에 30종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소한 2~3년 내에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맞춰 스마트폰 비중을 확대한다. 운영체제도 윈도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OS를 모두 섭렵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스마트폰 비중은 10% 미만에 머물렀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2011년에는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른 업체는 금년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에 분기별로 3개 모델, 총 12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2012년까지 스마트폰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폴더치와 디자인 등 일반 휴대폰에서 갖춘 강점을 스마트폰에도 접목,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모델을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통 사업자의 특화된 요구에 충실한 삼성과 LG의 경쟁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일대 혼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스마트폰 시장은 비즈니스 용도에서 탈피, 일반 사용자 중심으로 기반이 넓어지며 급격한 성장세에 있다. 올해 2억1000만대 수준에서 2012년 4억6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노키아가 S60을 탑재한 N·I 시리즈를 중심으로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 림의 블랙베리, 구글의 구글폰 등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 스마트폰이 노트북 대신하는 추세

휴대형 비디오카메라를 만드는 업체의 사장 경우, 외국으로 출장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지만, 호텔방에 두고 협력사나 고객을 만날 때 함께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e메일 체크부터 웹 사이트 서핑, 회사 회계 이력 확인, 제품 선적, 거래처 파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은 스마트폰으로 한다. 비행기에서 영화를 볼 때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모바일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이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이었던 노트북PC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수년 전 노트북PC가 데스크톱PC를 대체했듯이 스마트폰이 노트북PC 자리를 넘보고 있다.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애용한다. 스마트폰은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만큼 강력해졌다. 재고를 확인하는 것부터 영화를 보는 것까지 못하는 게 없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지 못하는 업무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자유로운 키보드 사용을 요하는 파워포인트 작업 정도라고 말한다.

### 대부분 노트북 기능이 스마트폰에 포함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다. 항상 휴대용 가방이 있어야 하는 노트북보다 편하다. 부팅도 빠르다. 노트북을 켜는 데는 수분 가량 소요되지만, 스마트폰은 수초면 가능하다. 최근 '애플 3G 아이폰' 등 3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마트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웹 속도도 빨라졌다. 오히려 이동 중이라면 '와이파이

(WiFi) 핫스팟' 을 찾아 헤매야 하는 노트북보다 스마트폰의 네트워크이 더 안정적이다. 세일즈 포스닷컴이나 넷스위트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제품을 잇따라 내놓아 스마트폰의 매력이 더욱 커졌다. SaaS는 컴퓨팅 파워를 크게 줄이는 소프트웨어 구동방식으로 스마트폰의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최근엔 애플 앱스토어와 같이 스마트폰 전용 소프트웨어도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노트북 자리를 빼앗겼느냐고 생각 하나, 루비콘 컨설팅 그룹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월 아이폰 사용자 4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이폰이 자신의 노트북을 대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29%는 다소 그렇다고 대답했다.

실제 미국 버라이즌은 스마트폰 업체 RIM과 손잡고 이 회사 기술직의 노트북을 RIM 스마트폰 '블랙베리' 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술직들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보고 있다. 버라이즌 부사장은 기술직 근로자들로부터 지난 25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호평을 듣고 있다.

#### 가입비용, 유지보수비용에서부터 비교우위

기존 파나소닉의 3.6kg 노트북에 비해 블랙베리는 매우 가볍지만 업무 처리 속도는 엇비슷하다. 버라이즌의 이 같은 계획이 현재 기술직이 쓰고 있는 노트북 1500대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까운 미래에 5000~7000대의 노트북을 추가 구매할 필요성

도 없어진다. 비용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 블랙베리 개당 1년 비용은 1300달러 선이지만, 노트북은 3500달러에 이른다. 부품 구매 및 기기 수리비용도 블랙베리의 경우 129달러, 노트북은 2000달러 선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은 노트북PC의 장점을 잇따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구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영체제인 '윈도 모바일' 을 개선시키고 있다. 차세대 제품은 노트북의 키보드 크기와 화면 크기를 재현한 스마트폰이다. 더 나은 키보드, 확장 가능한 스크린, PC에서만 다양했던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스마트폰은 홀로 PC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휴대폰 업체 노키아가 새로운 스마트폰 'N-97' 를 내놓고 애플의 '아이폰' 과 RIM의 '블랙베리' 와 승부에 나선다. 한때 70%에 달했던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RIM의 공세에 밀려 지난 3분기 38.9%까지 떨어진 상태다. 'N-97' 은 미래 성장 시장인 스마트폰에서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노키아의 의지를 반영한 제품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전략이 집약된 야심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비안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키보드와 화면이 35도로 기울어져 있어 쓰기 편하다. 하드웨어 기능으로는 아이폰을 능가한다는 평가지만, 너무 많은 기능을 구현하다보니 아이폰보다 30% 가량 두껍다는 비판도 있지만,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모바일 서비스 업체로 변신하겠다는 노키아의 미래전략이다.